

제주 마라도의 관광만족도와 관광 유인요인 연구

- 관광객을 중심으로 -

Factor of Tourism Attraction and Tourism Satisfaction in Jeju Island

- Focused on Tourist -

변 경 화* 강 은 정** 김 규 한***
Byun, Kyeong-Hwa Kang Eun-Jung Kim, Kyu-Ha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 of tourism attraction and tourism satisfaction in order to product plan of tourism policies related to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focused on Marado, Jeju Island. For that, a questionnaire is conducted by tourists who visit to Marado. The results are as follows. 30s and 40s tourists evaluate that Marado is more attractive in natural environment rather than 60s. Tourists who visit more than four times to Marado evaluated low in satisfaction for landscape of Marado but tourists who reside in other area not Jeju evaluate higher in satisfaction for landscape. The difference of residence areas shows same result in tourism attraction factors. Tourists participating in tour activities show higher in satisfaction rather than no-participants but the difference between participants and no-participants is not showed in tourism attraction factors. Tourism attraction is extracted four factors; natural environment, architectural environment, economic efficiency and psychological factor. The factors of natural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have the relation with satisfaction but the factors of economic efficiency and psychology do not show no relation with satisfaction.

키워드 : 관광유인, 관광만족도, 도서관광, 마라도, 도서지역

Keywords : Tourism Attraction, Tourism Satisfaction, Small Island Tourism, Marado, Small Island

1. 서 론

1.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관광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길이가 약 12,051km, 해수욕장 356개, 지정어장 415개, 소규모 어항 2000여개 등으로 수상 및 해양레저 스포츠를 위한 자연자원과 사회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나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관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비율이다¹⁾.

우리나라의 도서(島嶼)의 수는 총 3,170개로 이 중 유인도가 491개로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인도서들은 생활환경의 열악, 교통의 불편 그리고 교육시설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무인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²⁾.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수입원 증가를 비롯한 생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도서지역만이 가진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문화의 독특성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도서지역을 관광 목적지로 활용하면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개발 낙후로 보존되어진 자연, 전통 및 문화자원은 관광 콘텐츠로 선호되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이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도서지역의 관광유인에 대한 요인과 관광만족도를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정희원, 관동대학교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조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khbyun@kd.ac.kr)

** 정희원,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강사, 관광학박사

*** 정희원,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3R1A2A2A04015403)

2) 본 연구는 산업자원통상부지원 지역혁신센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1)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p.28.

2) 윤종현·박승규, 도서(섬)지역 통계(DB)구축,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pp.13-18.

1.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내재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유인도서로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마라도를 대상으로 관광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광유인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광객의 특성과 관광활동에 따른 관광만족도
- ② 마라도 관광유인의 요인
- ③ 관광객의 특성과 관광활동에 따른 관광유인의 요인
- ④ 관광만족도와 유인요인과의 관계

최근의 관광은 생태, 환경, 보존, 문화체험 등과 같은 보존적 측면과 문화의 독특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보존과 개발에서의 합리적인 접합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은 마라도 남남서쪽 149km 떨어진 “이어도3)”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거주에 의해 형성된 문화가 존재하는 도서지역이라는 의미로서 “마라도를 최남단”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도서관광의 자원은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최남단 마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와 마라도가 가진 관광유인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마라도 관광을 마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동기, 참여활동, 만족도 등에 대하여 1차 예비조사(2011년 7월)를 실시하여,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2차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본 조사(2011년 9월 6일~10월 8일)는 조사원들의 1대 1일 개별면접에 의해 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총 320부를 배포하여, 30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93.7%를 보였으나 응답 부실, 미기입 등의

3) 제주도 남남서쪽 바다인 동중국해 중앙에 있으며 일년에 몇 차례 바다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간출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의 실재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1년으로,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 바다 속의 검은 바위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 최초의 구조물은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설치한 이어도 동부포(선박 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로 그 당시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http://www.ieodo.or.kr>)]

설문지를 제외한 274부를 분석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관광객의 일반적인 사항과 마라도관광에 대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문항분류(문항 수)	문항 내용	비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변인 (5)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거주지역	거주지역(서술형)을 제외한 선택형 질문
	관광변인 (3)	방문형태, 방문횟수, 체류기간	방문횟수(서술형)를 제외한 선택형 질문
마라도 관광 평가	관광활동 (1)	마라도에서 참여한 관광프로그램	선택형 질문
	관광만족도 (8)		5점 리커트척도
	관광 유인요인 (15)		

관광객의 일반적 사항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광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마라도관광에 대한 평가는 마라도 관광활동의 참여여부, 관광만족도, 그리고 관광유인에 대한 요인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라도관광에 대한 만족도와 유인요인에 대한 평가는 5점 리커트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로 신뢰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853과 0.847로서, 이 조사에서 사용한 항목의 적절성이 판명되었다<Table 2>.

데이터분석은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T-test, ANOVA(사후검증: Scheffe), 관광유인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Verification of Reliability on Questions of Tourism Satisfaction and Attraction

평가항목	Cronbach's Alpha	Cronbach'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관광만족도	0.853	0.856	8
관광 유인요인	0.847	0.849	15

*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0.5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2. 도서관광과 관광유인에 대한 고찰

2.1 도서관광

UN의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섬이란 바다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에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암석이나 인공섬은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개발 촉진법에 명기된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포함시키고 있다4). 도서

4) 윤종현·박승규, 도서(섬)지역 통계(DB)구축,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pp.2-3.

관광은 도서지역이 내륙, 어촌, 해변, 해중, 해저 공간의 부존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고 있다⁵⁾. 도서관광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해양관광의 일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어 도서관광만의 두드러진 특징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버틀러(Butler)의 관광목적지 수명주기 모델에 의하면, 도서관광은 탐험단계(Exploration)에서 쇠퇴단계(Decline)로 급격하게 진행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서관광은 주로 3S인 태양(Sun), 바다(Sea), 모래(Sand)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관광(Mass Tourism)의 활성화와 함께 발전하였으며, 휴양을 위한 관광목적지 강하게 내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온난하고 아열대 기후 중심의 지중해, 카리브해,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의 섬들에 위치한 리조트들이 3S를 주요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면서 북유럽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⁶⁾.

국내의 도서들은 지리적 지형적 위치로 말미암아 휴양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들은 현재의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특별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고비용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해양생태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어촌관광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2.2 관광유인

Cha, McCleary & Uysal(1995)에 의하면 관광지의 선택은 관광객 자신의 내부적 요인과 목적지가 주는 매력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목적지를 선택하게 된다.⁷⁾ 관광객 자신의 내부적 요인을 관광동기라고 한다면, 목적지가 주는 매력요인을 유인요인이라 할 수 있다.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을 유발하는 자극 또는 실제의 관광행동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추동력(Driving force)이라 할 수 있다. Mayo와 Jarvis는 관광동기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인 호기심과 다양성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심리적·사회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된 척도에 기준하여 관광동기 요인을 추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⁸⁾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이론은 1960년대 제시되어,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광동기가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지를 방문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관광지의 입장에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매력요소를 유인요인이라 할 수 있다. Crompton(1979)에 의하면, 유인요인은 관광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초기단계에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여행을 떠나도록 행동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특정지역으로 끌어당기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하였다⁹⁾.

이러한 관광 유인요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관광 목적지가 가진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물리적인 자원이나 자연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역사, 인문, 사회, 문화 환경 등 그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내재되어 있는 모든 환경이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이 관광유인의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환경이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얼마나 갖추는가에 따라서 관광 유인의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상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의 가치를 부여하여 의미를 갖출 때, 그 관광자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3. 마라도의 현황

3.1 마라도의 지리적 현황 및 역사

마라도(馬羅島)는 북위 33°6'33", 동경 126°11'3"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남단 유인도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¹⁰⁾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11km, 가파도에서는 약 5.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

면적은 0.3km², 동서길이는 0.5km, 남북 길이는 1.2km로 남북으로 긴 타원의 형태로 해안선의 길이는 4.2km이다. 해발고도는 39m로 평탄한 지형이지만 오랜 해풍의 영향으로 해안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제 423호로 지정되었다.

탐라순력도 「대정강사편」에는 마라도를 “츨녕클이 우거진 섬”으로 기록되어 있어, 마라도가 과거에는 울창한 숲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라도는 ‘금섬(禁島)’으로 여겨져, 접근을 꺼려하였던 섬이었다.



Fig. 1. Location and Shape of Marado

5)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pp.33-38.

6) 강은정, 도서관광객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마라도를 중심으로, 이어도 연구 3호, 2012. pp.253-269.

7) 송대호, 농촌관광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측정, 농촌관광연구 12(2), 2005. pp.117-144.

8) 양희재, 한국인의 해양관광 의식구조, 서울: 백산 출판사, 2008. pp.39-40.

9) 송대호, 농촌관광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측정, 농촌관광연구 12(2), 2005. pp.117-144.

10) 조선후기에는 대정읍 하모리에 속하고, 일제강점기부터 가파리에 속하였으나, 1981년 4월 1일 「가파리」에서 분리되었다.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II(서귀포시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p.578-579.

마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83년(고종 20년)에 모슬포에 거주하던 김(金)·나(羅)·한(韓)씨 등 영세 농어민 4, 5세대가 당시 제주목사로부터 개간 허가를 얻어 입도하면서 부터이다. 이 거주민들은 농경에 필요한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전을 시작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마라도의 삼림지대가 사라지게 되었다.¹¹⁾

「마라도」는 摩羅島, 摩羅島, 摩羅嶋, 麻羅島, 摩羅島의 한자로 표기되었으며¹²⁾, 「대동여지도」(1861)에서는 ‘摩羅’라고 표기되어 있다<Figure 2, 점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馬羅島(마라도)’라는 표기는 19세기 이전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세기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일제강점기 지도와 오늘날 지도에는 마라도의 한자표기를 ‘馬羅島’로 사용하고 있다.¹³⁾



Fig. 2. Area of Marado(Mara) Expressed in Daedongyeojido」(22 Cheop)

마라도에는 19세기 후반에야 거주민들이 입도하여, 거주민의 유입시기가 늦고, 해풍의 영향으로 형성된 기암절벽으로 인하여, 어업이 크게 발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을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인구는 총 112명(2014년 2월 기준)¹⁴⁾이며, 현 거주자는 약 50~60명 정도로 낮다.

1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17323

12) 「신증동국여지승람」(권58, 대정현, 산천)(1530년)에는 ‘摩羅島(마라도: 마래섬)’, 「탐라지」(대정현, 산천)(1653년)와 「남사일록(1679~1680)」, 「탐라도(17세기말)」, 「남환박물」(지도)에는 ‘摩羅島(마라도: 마래섬)’, 「탐라순력도」(대정강사)(1702년)에서는 ‘摩羅嶋(마라도: 마래섬)’,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는 ‘麻羅島(마라도: 마래섬)’, 「제주삼읍전도(1872)」 등에는 ‘摩羅島(마라도)’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마라도’라 하고 무가(巫歌)의 사설에서는 ‘마으렛섬, 마래섬’이라 하는데, ‘마으레’ 또는 ‘마래’, ‘마라’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 ‘마으레’는 冠(관)·모(帽)의 뜻을 가진 만주어 차용으로 ‘마호래’와 음성형이 비슷하다.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II(서귀포시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p.579-580.

1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II(서귀포시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580.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마을」 소개 편,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117/>)

마라도에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박물관, 태양광발전소, 마라도 등대, 분교, 성당, 절, 교회, 파출소, 보건소, 복지회관이 있다.

3.2 마라도의 관광자원 및 관광객 현황

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영토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해양문화관광에서도 매력적인 자원이다. 마라도가 가진 관광자원을 정리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으로서, 기암절벽의 해안 등과 같은 자연경관이다. 둘째는 마라도의 입지적 조건으로서 우리나라 최남단 유인도라는 의미에서 지리적 상징성이다. 셋째는 할망당, 장군바위 등과 같이 토속신앙이 결합된 문화와 마라도의 전통문화이다. 마지막으로 ‘자장면 먹기’¹⁵⁾와 같이 새로이 정착한 마라도 문화이다.

마라도의 주요산업은 어업과 관광업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당일 방문객이므로, 숙박업보다는 음식판매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마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들은 마라도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되고 있다.

마라도 관광객의 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 연속 감소하여¹⁶⁾<Figure 3>,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라도 방문객이 2007년부터 증가한 이유는 2007년 1월부터 고속 여객선인 모슬포 1호의 증선 투입 및 마라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 횟수의 증편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마라도가 외부로 통하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으로서 정기 여객선은 제주도 본섬인 모슬포항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오후 4시까지 총 7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송악산에서 출항하는 관광유람선은 정기운항이 4편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있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증편될 때에는 10편이 운항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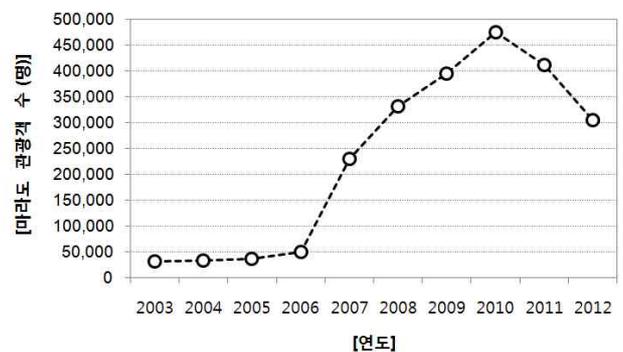


Fig. 3. Number of Tourist in Marado by Year

15) 1997년 모 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광고에서 마라도에서 ‘자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광고멘트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마라도에서 ‘자장면 먹기’가 새로운 관광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16) 김문기, “마라도 방문객 감소. 체류시간 연장 등 관광 활성화 방안 절실” 「제민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기사

4. 마라도 관광유인 요인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마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만족도와 관광유인의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광변인을 선정하였다<Table 3>.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거주지역을 조사¹⁷⁾하였으며, 관광변인은 마라도에 방문한 횟수, 방문형태와 체류시간이다.

Table 3. General Information of Respondents

항목		N(%)	항목		N(%)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남성	144(52.6)	관광변인	방문형태	개인	11(4.0)
		여성	130(47.4)			가족	89(32.5)
	연령	20대	67(24.5)		커플	54(19.7)	
		30대	83(30.3)		친구·친지	57(20.8)	
		40대	58(21.2)		친목단체	40(14.6)	
		50대	55(20.1)		단체여행	13(4.7)	
		60대 이상	11(4.0)		기타	10(3.6)	
	학력	중졸	4(1.5)		방문횟수	첫방문(1회)	231(84.3)
		고졸	81(29.6)			2회	5(1.8)
		대졸	166(60.6)			3회	23(8.4)
대학원졸 이상		23(8.4)	4회 이상	7(2.6)			
혼인여부	미혼	99(36.1)	무응답	8(2.9)			
	기혼	175(63.9)	체류시간	2시간 미만	228(83.2)		
거주지역	제주지역	27(9.9)		2~3시간	40(14.6)		
	타 지역	247(90.1)		3~4시간	6(2.2)		
계		274(100.0)	계		274(100.0)		

응답자는 남성이 52.6%로 여성보다 약간 많으며, 연령은 30대가 8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20대로서, 20대-3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60.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기혼 응답자가 63.9%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27명으로, 약 90%의 응답자가 제주 이외의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¹⁸⁾으로 조사되었다.

마라도 관광객의 방문형태를 살펴보면, 가족(자녀동반)이 3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친구 및 친지가 20.8%, 그리고 부부 및 연인인 커플의 경우가 19.7%, 친목단체 및 동우회와 같은 소규모의 단체가 14.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그룹단위가 전체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여행은 4.0%로 낮게 나타났다.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84.3%의 관광객이 당일투어 코스로 마라도를 방문하고 있으며, 15.7%(43명)의 관광객이 마

17) 이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직업과 월 평균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나, 관광유인 요인과 만족도 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18) 제주 이외의 “타 지역”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행정구역별로 분류하였으나, 이 분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도를 재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2.6%를 보이고 있다.

마라도에서의 체류시간을 보면, 2시간 미만이 83.2%, 2-3시간 미만이 14.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관광객이 3시간 미만 정도로 체류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¹⁹⁾. 마라도가 외부로 통하는 교통수단인 정기여객선은 제주도 본섬인 모슬포에서, 관광유람선이 송악선에서 출항을 하고 있다. 관광성수기에는 관광유람선이 증편을 하여, 마라도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지만, 여객선과 유람선의 운행시간을 살펴보면 최대 약 6시간 정도 머물 수 있다.

4.2 마라도의 관광활동 프로그램

본 조사가 이루어진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마라도에서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는 관광활동은 ① 최남단 기념비 앞에서 사진촬영, ② 걸어서 해안경관 관광, ③ 자장면 사먹기, ④ 마라도 등대관람, ⑤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 ⑥ 추억(방문흔적) 남기기, ⑦ 바다낚시, ⑧ 자전거 타기의 8 종류로 나타났다.

이 8종류의 관광활동을 분류해 보면, (1) 마라도의 경관 자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걸어서 해안경관 관광」과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 (2) 마라도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최남단 기념비 앞에서 사진촬영」과 「마라도 등대관람」, (3) 마라도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된 프로그램으로 「자장면 사먹기」, 그리고 (4) 관광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바다낚시」와 「자전거타기」의 4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라도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토속신앙과 결합된 ‘할망당’, ‘장군바위’, 혹은 마라도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8종류의 관광활동에 참여한 관광객의 수를 산출하면 <Figure 5>와 같다. 관광활동에 참여한 응답자와 비참여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프로그램은 「바다낚시」와 「자전거타기」의 2종류로, 관광객들의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관광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최남단 기념비 앞에서 사진촬영」, 「걸어서 해안경관 관광」, 「자장면 사먹기」, 「마라도 등대관람」,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의 5 종류로 나타났다.

즉 마라도 관광객들은 마라도만이 가진 자원이나 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어, 마라도 지역



Fig. 4. Marado Monument

19) 설문항목에는 4시간 이상도 제시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에 내재된 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 프로그램은 카트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인하여 2014년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카트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과 이를 조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부재는 「마라도 등대관람」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났다. 마라도 등대의 정식 명칭은 <마라도 항로표지관리소>로서,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이 육지초인표지로 이용되는 등대이다. 마라도에 등대가 건립됨으로써, 국제항로표지 지도에 마라도가 표기되어 국제적으로 마라도의 지리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최초의 마라도 등대<Figure 6, 출처; 제주근대건축 산책, 제주의 소리, 2013. 2. 9일자 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15년 3월 4일[조선총독부고시 46호]에 건립된 등탑높이가 6.1m의 원형 벽돌건물이었다. 따라서 초기에 건립된 마라도 등대는 근대건축물의 유입이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기술적 가치와 같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하다”라는 건축물의 사용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어, 1987년 현재의 등대로 개축되면서 1915년에 건립된 근대건축물인 등대는 허물어졌다.

현재의 「마라도 등대관람」 프로그램에서의 마라도 등대<Figure 7>는 1987년 개축된 현대식 등대이다. 이 등대는 마라도의 산책길에 위치해 있어, 마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 마라도의 랜드마크로서 존재하는 마라도등대가 산책로에 위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근대기에 건

립된 마라도 등대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관광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진행되는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물의 가치와 의미를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관광자원이 상실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적 분야에서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상실된 것이다.

4.3 마라도 관광 만족도

(1) 마라도 관광 만족도 평가

관광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8문항을 작성하고 마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하였다<Figure 7>. 관광만족도의 8문항은 마라도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자연경관,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지리적 상징성, 마라도 관광을 주위에 권유하거나 재방문에 대한 의향 여부이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간치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8문항 모두 3 이상이며, “마라도 관광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평균은 3.7로서, 관광객들은 마라도 관광에 대해 비교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마라도의 자연경관이 아름답다”가 4.08로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마라도 관광을 주위사람들에게 권유할 것이다”가 3.9로 평가되었지만, “마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에서는 3.55로서, 마라도 관광을 주위에 권유하는 것이 비해, 마라도의 재방문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남단 마라도 방문은 제주 방문목적을 수행한 것 같다”가 3.83, “최남단 마라도 방문은 내 인생에 추억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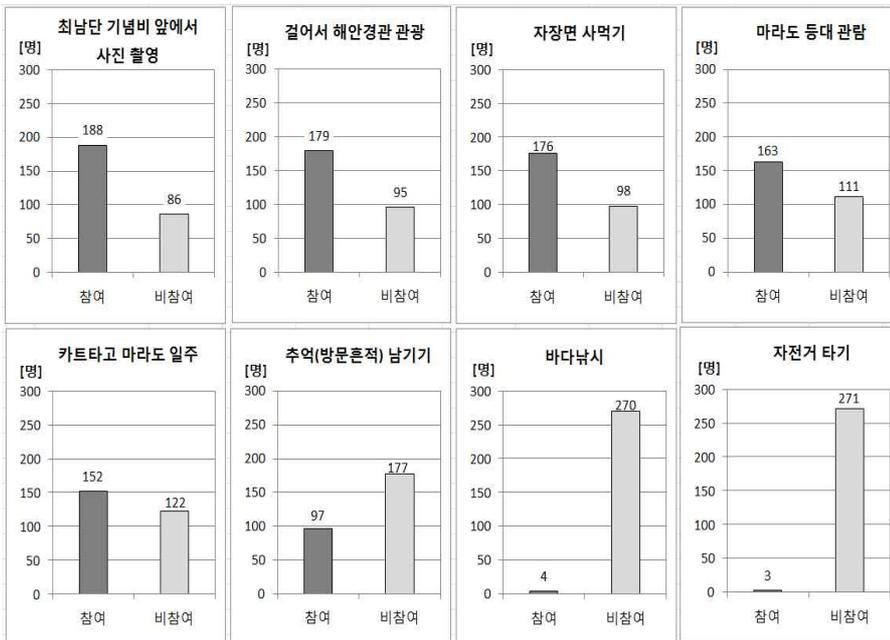


Fig. 5. Tourism Activities in Marado



Fig. 6. Marado Lighthouse Built in 1915



Fig. 7. Marado Lighthouse Built in 1987

기는 것이다”가 3.89로 나타나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반영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낮게 평가된 항목은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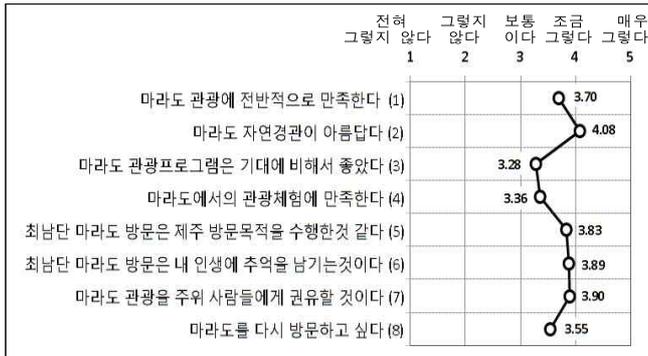


Fig. 7. Tourism Satisfaction in Marado

(2)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관광만족도 평가

관광만족도의 8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T-test와 ANOVA(사후검증; Scheff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있어서는 거주지역에서 차이를 보였으며<Table 4>, 관광변인에서는 방문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두 변인 모두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제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 만족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마라도의 자연경관이 제주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바다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은 마라도의 자연경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라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관광객의 방문횟수

Table 4. Tourism Satisfaction by Residential Area

평가항목	거주지역	N	평균	평균차	df	t	Sig.
마라도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제주지역	27	3.41	.321	272	8.209**	.004
	타 지역	247	3.73				

**p<.01

Table 5. Tourism Satisfaction by Visiting Times

평가항목	방문횟수	빈도	평균	SD	F값	Scheffe Test
마라도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첫 방문(1회)	231	4.14	.68	4.834**	A
	2회	5	4.00	.00		A
	3회	23	4.00	.76		A
	4회 이상	7	3.14	1.07		B

1) 방문횟수에서 무응답 7사례는 제외하였음

2) **p<.01

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회 이상」을 방문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라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3회째 방문까지는 방문횟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첫 방문 응답자들의 자연경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방문객들은 기존 방문을 통하여 마라도에 대한 인식이 일정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라도의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마라도 관광활동에 따른 관광만족도 평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관광만족도를 관광활동에 따라 T-test한 결과, 4종류의 관광활동에 따라 6개의 만족도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마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8종류의 관광활동 중, 「바다낚시」와 「자전거 타기」는 참여한 응답자가 4명 이하로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차이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6종류의 관광활동에 따른 만족도를 분

Table 6. Tourism Satisfaction by Tourism Activities in Marado

만족도 평가항목	집단	N	평균	평균차	df	t	Sig.	
마라도 관광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자장면 사먹기	참여	176	3.73	.084	272	4.417*	.037
		비참여	98	3.64				
마라도에서의 관광체험에 만족한다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	참여	152	3.42	.145	272	6.179*	.014
		비참여	122	3.28				
	자장면 사먹기	참여	176	3.39	.093	272	9.329**	.002
		비참여	98	3.30				
최남단 마라도 방문은 제주 방문목적을 수행한 것 같다	최남단 기념비 앞에서 사진촬영	참여	188	3.91	.264	272	6.145*	.014
		비참여	86	3.65				
	자장면 사먹기	참여	176	3.89	.168	272	8.768**	.003
		비참여	98	3.72				
	추억(방문흔적) 남기기	참여	97	4.00	.260	272	12.066***	.001
		비참여	177	3.74				
최남단 마라도의 방문은 내 인생에 추억을 남기는 것이다	추억(방문흔적) 남기기	참여	176	4.04	.228	272	5.527*	.019
		비참여	98	3.81				
마라도 관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것이다	추억(방문흔적) 남기기	참여	176	4.03	.200	272	4.245*	.040
		비참여	98	3.83				
마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	추억(방문흔적) 남기기	참여	176	3.82	.418	272	6.323*	.012
		비참여	98	3.41				

*p<.05, **p<.01

석하였다. 6개의 만족도 항목에서 4종류의 관광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6개의 항목 모두 관광활동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비참여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먼저 「걸어서 해양경관 관광」과 「마라도 등대관람」은 참여와 비참여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만족도 항목을 보면, 마라도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자장면 사먹기」, 마라도에서의 관광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자장면 사먹기」와 「카트타고 마라도 일주」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최남단 마라도 방문은 제주 방문목적을 수행한 것 같다”라고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된 프로그램은 「최남단 기념비 앞에서 사진촬영」, 「자장면 사먹기」, 「추억(방문흔적) 남기기」로 나타났다.

마라도 관광만족도 항목의 수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난 프로그램은 「추억(방문흔적) 남기기」로서, 이 활동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마라도 방문은 내 인생에 추억을 남기는 것”, “마라도 관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것”, 그리고 “마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더 높게 만족하고 있다. 마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추억(방문흔적) 남기기」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또는 다양한 측면에서 만족을 느낄 때, 여러 가지 관광활동 중에서 「추억(방문흔적) 남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마라도 관광 유인요인

(1) 마라도 관광 유인요인 추출

마라도 관광 유인요인에 대하여 15문항을 작성하고 5점 리커트척도로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조금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하였다.

먼저 15문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Table 7>, “마라

도는 섬 속의 섬이다”가 가장 높은 4.0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마라도가 최남단 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3.97)”, “마라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3.93)”, “마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3.9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마라도의 입지조건이나 자연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항목이 유인요인으로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치인 3을 기준으로 볼 때, 3이하의 “마라도는 볼거리가 풍부하다”와 “마라도는 적막하다”라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도서지역을 방문할지라도 「적막감」라는 심리적 요인은 덜 작용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라는 항목이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볼거리가 풍부하다”에서는 낮게 평가되어, 자연경관과 「볼거리」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마라도 관광의 유인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이상의 1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설명력은 63.6%로 나타났다<Table 7>.

제1요인은 마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상징성”, “생태학적 가치”, “자연경관”에 대한 항목으로 묶여,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마라도의 “볼거리”, “편의시설”, “관광정보 및 안내관”, “독특한 섬 생활”에 대한 항목으로서 「건축환경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볼거리”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연경관과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건축요소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3요인은 마라도의 “접근성”, “비용”, “시간”으로 묶여, 「경제효율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요인은 마라도의 “조용함”, “적막함”, “마음의 안정”에 대한 항목으로서 「심리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Table 7. The Average and Factor Analysis about Tourism Attraction of Marado

	평균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제4요인
		자연환경적 요인	건축환경적 요인	경제효율적 요인	심리적 요인
마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3.92	.857	.161	.016	.118
마라도가 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3.97	.775	.089	.106	.022
마라도는 제주도의 섬 속의 섬이다	4.00	.697	.065	.223	.018
마라도의 해양 생태학적 가치가 중요하다	3.77	.689	.277	.004	.155
마라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3.93	.558	.340	.083	.253
마라도는 볼거리가 풍부하다	2.99	.117	.778	.026	.104
편의시설(식수대, 화장실 등)이 잘 되어 있다	3.00	.106	.770	.162	.000
관광정보와 안내관이 잘 되어 있다	3.12	.184	.707	.083	.100
마라도는 독특한 섬 생활을 보여준다	3.18	.247	.703	.157	.105
마라도는 섬이지만 타 관광지에 비해 접근이 용이하다	3.26	.073	.089	.857	.121
마라도는 섬이지만 타 관광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었다	3.14	.065	.170	.829	.118
마라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3.52	.170	.100	.704	.155
마라도는 조용하다	3.16	.112	.145	.090	.836
마라도는 적막하다	2.82	.038	-.042	.126	.813
마라도는 마음의 안정을 제공한다	3.43	.243	.252	.246	.687
고유치		4.899	1.833	1.483	1.328
설명력		32.659	12.223	9.886	8.851
누적설명력		32.659	44.882	54.768	63.619

(2) 관광객의 특성과 활동에 따른 유인요인

앞서 추출한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사후검증; Scheff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관광객의 특성 중, 관광 변인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인 연령<Table 8>과 거주지역<Table 9>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2개의 변인 모두 제1요인인 「자연환경적 요인」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Table 8. Tourism Attraction by Age of Respondents

유인요인	집단	빈도	평균	SD	F값	Scheffe Test
자연환경적 요인	20대	67	3.88		4.006*	A B
	30대	83	3.97			A
	40대	58	3.97			A
	50대	55	3.92			A B
	60대 이상	11	3.45			B

*p<.05

Table 9. Tourism Attraction by Residential Area

유인요인	거주지역	N	평균	평균차	df	t	Sig.
자연환경적 요인	제주지역	27	3.87	.55	272	6.347*	.012
	타 지역	247	3.92				

*p<.05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30·40대」와 「60대 이상」 간에 차이를 보여 「30·40대」 관광객들은 「60대 이상」에 비해 마라도의 「자연환경적 요인」 때문에 마라도를 방문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요인」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거주지역 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제주 이외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이 「자연환경적 요인」 때문에 마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라도에서의 관광활동에 대한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는 관광 유인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광 유인요인은 관광지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는 관광지의 매력요인이므로, 이미 마라도를 선택하고 방문한 이후에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3) 마라도 관광만족도와 유인요인 간의 상관관계

마라도 관광만족도와 유인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4개의 요인 중에서 「건축환경적 요인」은 관광만족도의 8개 항목 모두 0.35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관광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적 요인」은 자연경관과 제주방문 목적의 수행달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연경관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제주 방문목적 수행의 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제주 방문목적의 수행에 관련한 만족도 항목은 마라도의 관광활동에 프로그램의 참여와 비참여 간에 가장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다. 즉 최남단 마라도를 방문하였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관광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환경적 요인」은 마라도관광의 전반적인 만족도, 관광프로그램, 관광체험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식수대 및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 관광정보와 안내관 등에 대한 시설물, 건축적인 볼거리 등과 같은 건축환경적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수록 관광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볼 때, 마라도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Figure 7>은 마라도에는 이러한 건축환경적 시설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효율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본 연구에서 작성한 8개의 관광만족도 항목과는 모두 정(+)의 관계를 보이지만, 0.36이하의 상관관계만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 내제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남단 유인도서인 마라도를 대상으로 관광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광유인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라도에서의 관광활동은 마라도의 지리적 상징성, 경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Tourism Satisfaction and Tourism Attraction in Marado

관광만족도	관광 유인요인	제1요인	제2요인	제3요인	제4요인
	자연환경적 요인	건축환경적 요인	경제효율적 요인	심리적 요인	
마라도 관광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0.30	0.50	0.33	0.35	
마라도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0.44	0.35	0.36	0.32	
마라도 관광프로그램은 기대에 비해서 좋았다	0.19	0.52	0.15	0.27	
마라도에서의 관광체험에 만족한다	0.23	0.46	0.26	0.25	
최남단 마라도 방문은 제주 방문 목적을 수행한 것 같다	0.48	0.38	0.24	0.26	
최남단 마라도의 방문은 내 인생에 추억을 남기는 것이다	0.37	0.36	0.28	0.23	
마라도 관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것이다	0.37	0.38	0.34	0.36	
마라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	0.26	0.39	0.28	0.30	

관자원, 문화, 그리고 관광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마라도의 관광객들은 마라도만이 가진 자연경관, 독특한 문화 그리고 지리적 상징성과 관련된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관광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도의 토속신앙이나 전통문화와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지역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마라도 관광 유인요인은 「자연환경적 요인」, 「건축환경적 요인」, 「경제효율적 요인」, 「심리적 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중 「자연환경적 요인」과 「건축환경적 요인」은 관광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효율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연환경적 요인」의 경우, 자연경관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제주 방문목적 수행에 대한 만족도 높게 나타나, 최남단 마라도를 방문하였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마라도의 자연환경, 특히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 이외의 타 지역 관광객들과 마라도를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

「건축환경적 요인」은 다른 요인들 보다 관광만족도와 전반적으로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식수대 및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 관광정보와 안내판 등에 대한 시설물, 건축적인 볼거리 등과 같은 건축환경적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수록 관광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볼 때, 마라도 관광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마라도의 건축환경적 시설에 대한 대안이 보다 더 요구된다.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태환경, 독특한 문화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은 건축환경적 측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라도의 “자연경관”이 관광만족도와 유인요인에서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은 관광자원으로서 자연경관과 편의시설의 확충이라는 건축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마라도의 관광활동 프로그램 중,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의 부재로 중단된 관광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마라도 등대의 지정학적·시대적·건축적 가치를 파악하지 않고 현대식 등대로 교체되어 관광산업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들과 맞물린 융합분야이므로 건축물, 건축환경, 도시공간 등의 도시건축분야와 관광산업과의 관계를 보다 폭 넓고 다각적 관점에서 융합할 때, 바람직한 건축문화의 보존정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마라도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관점에서 관광만족도와 유인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도서지역에 내제된 자원들이 관광 유인요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광객들의 관점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관점이 아니라 마라도 주민, 관광관련 단체와 정부기관 등의 입장에서 유인요인을 추출하여, 관광객이 인식하는 관광동기 및 목적 그리고 유인요인과의 차이점과 상관성을 분석하여,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을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제안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2.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의 이해, 1997.
3. 양희재, 한국인의 해양관광 의식구조, 서울: 백산 출판사, pp.39-40. 2008.
4.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II(서귀포시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pp.579-580. 2007.
5. 강은정, 도서관광객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마라도를 중심으로, 이어도 연구 3호, pp.253-269. 2012.
6. 윤종현·박승규, 도서(섬)지역 통계(DB)구축,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2-18. 2008.
7. 송대효, 농촌관광의 추진요인과 유인요인 측정, 농촌관광연구 12(2), pp.117-144. 2005.
8. 조재문, 환경관광 관여와 유인전략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평가, 관광·레저연구 13(2), pp.161-178. 2002.
9. 김문기, “마라도 방문객 감소. 체류시간 연장 등 관광 활성화 방안 절실” 「제민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기사
10.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http://www.ieodo.or.kr>)
1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17323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마을」 소개 편,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117/>)
13. 제주의 소리, [제주근대건축 산책], “산선수전 꼬박 100년, 등대는 모든걸 지켜왔다”, 2013.2.9.일자 기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789>

접수일자 : 2014. 4. 10
 심사완료일자 : 2014. 5. 20
 게재확정일자 : 2014. 5. 23